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 “내 월급통장 사장이 관리”

2024 전남 이주노동자 실태 조사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급여통장을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급여통장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주노동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교육센터에서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

문보현 전남노동권익센터 팀장이 발표한 '2024 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는 올해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용허가제와 결혼배경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294명을

‘소유주 모른다’도 20% 달해
 평균 월급 259만8000원 중
 절반이 숙소비·‘벌금’ 11.8%
 ‘불이익 우려 무대응’ 64.6%
 언어장벽 등에 ‘인권 사각
 법·제도적 지원 방안 시급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들의 월급 평균은 259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은 숙소비용(52.0%)인 것

으로 집계됐다. 식대(31.5%), 저축(13.4%)에 이어 벌금 항목이 11.8%로 적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또 이들 중 ‘공제항목을 잘 모른다’고 답한 경우도 20.5%에 달해 한국 법률 교육과 생활 적응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금이 입금되는 통장이 없다’고 답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통장 소유자를 살펴본 결과 ‘사장이 관리한다’는 답변은 40.0%였고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20.0%였다. 60%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월급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근무시간을 살펴본 결과 하루 9~10시간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7%에 달했고 11~12시간 일한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12%였다.

또 13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7%나 됐다. 10명 중 7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노동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 현장에서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는 64.6%로 가장 많았고 이외 대처법으로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신고(45.8%),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 요청(29.2%)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 방법을 알고 조치해도 되레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부당대우 대처 이후 ‘오히려 사업주나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받았다’는 노동자가 가장 많게(33.3%) 집계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 노동자(77.3%)에게 차별을 당했으며 다른나라 이주노동자(17.5%), 남성 이주노동자(11.3%)에게도 비슷한 경험을 받

았다.

23.4%가 아직도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해 임금체불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의 경우 1~3개월 임금이 밀린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71.1%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15.6%, 6개월~1년 8.9%순이었다. 1년이상 임금체불을 경험한 이주노동자는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 팀장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지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쉽지 않고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등 한계가 있다”며 “관계기관의 적절한 법과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페트병 분리배출 잘 되고 있다
 11일 광주시 북구청 자원순환팀이 중흥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분리배출장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철도노조 오늘 복귀... 열차 정상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일주일만에 타결됐다.

노조원이 현장에 복귀한 데 따라 KTX와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 운행은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10일 오전부터 진행된 줄다리기 실무교섭 끝에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2024년도 임금 2.5% 인상, 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 인력 충원,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한편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2600여명의 조합원 중 1400여명이 지난 5일부터 파업에 참여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미곡처리장 사망사고’ 화순농협 조합장 중처법 기소

검찰이 2023년 초 화순의 한 미곡 처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화순농협 조합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화순농협 조합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직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11일 오후 6시 10분께 화순농협 미곡처리장 화물 적재기를 수리하던 20대 직원 A씨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위로 올려진 적재대가 갑자기 급강하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기념재단, ‘왜곡 발언’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 고발

출판사 대표 등도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과 출판사 대표 A씨가 5·18왜곡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11일 김 전 위원장과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등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5·18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위원장이 2020년 12월 인터넷신문과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의 출판사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판했다. A씨는 5·18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 중위로 광주에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쓴 ‘금남로 전투: 금남로대첩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에는 5·18이 북한 특수군 400여 명이

침투해 벌인 ‘전쟁’이라는 내용과 5·18 당시 시민으로 가장한 북한 특수군 400여명이 계엄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내용, 발포 명령을 자신이 내렸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김 전 위원장과 A씨의 주장은 5·18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다”며 “5·18왜곡방지법이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부각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악용해 역사적 사실을 폄하하고, 5·18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법 개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유권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 대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3월 4일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일명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구민에게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직접 권유·유도했다”며 “(이중 투표 권유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됐음에도 이후 지지자들이 경선에서 이중 투표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선거구민을 만나 질문에 대답하다 무의식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이중투표를 할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것일 뿐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년 1월 17일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사비) 하루 20만원(일당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